

PRACTICES FOR INCLUSIVE CITIES: Alternative Planning for Gyeonguiseon Commons

Bae-Gyoo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Yoonai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snucac@gmail.com

EA - ICN Workshop
Hong Kong, July 11-13
2018

Presentation B r i e f

1.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2. Gyeonguiseon Commons

@ Seoul, South Korea

3. Alternative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http://snuac1.snu.ac.kr/c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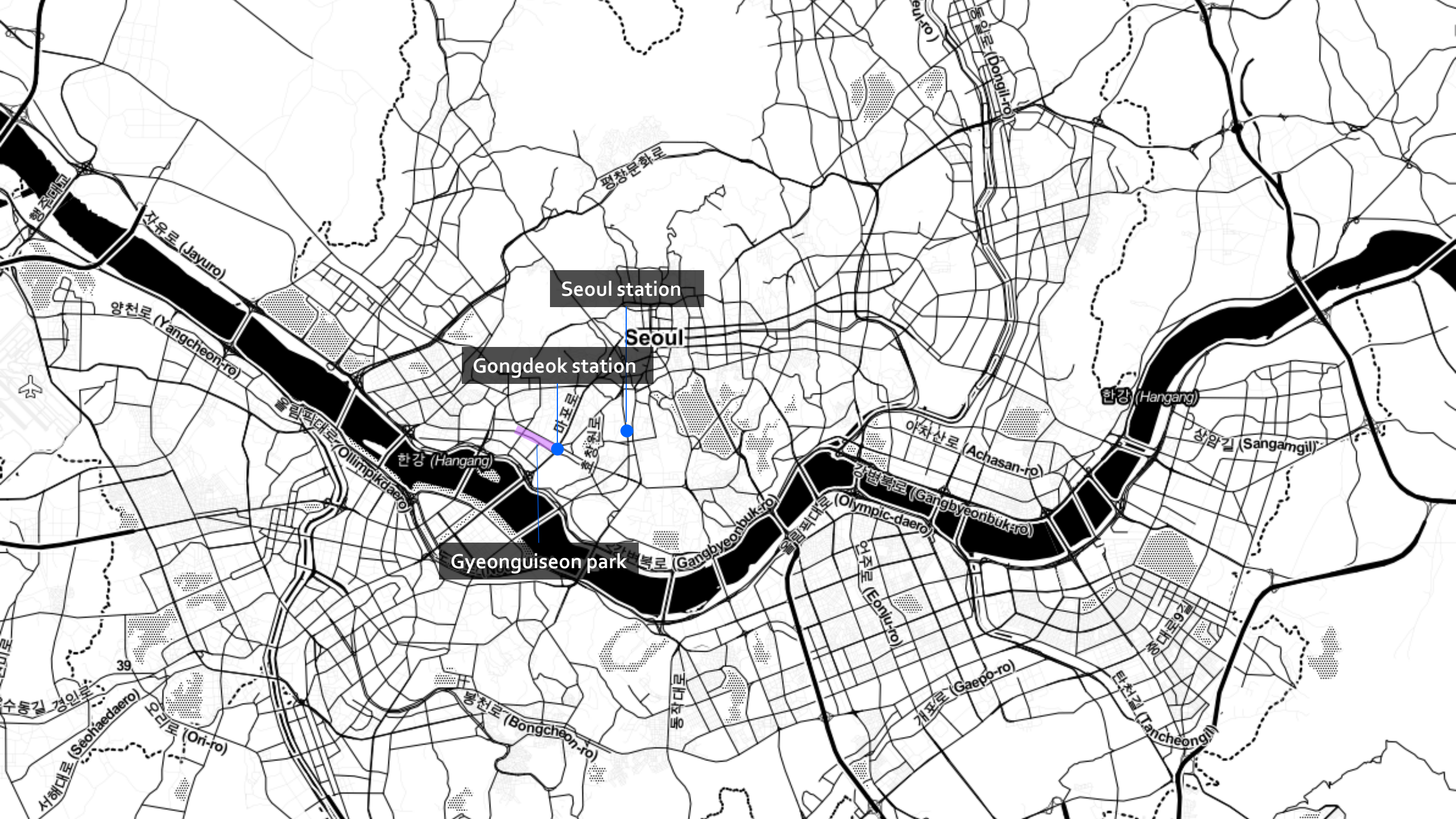
- **Project: A Study on a New Urban Paradigm in the Era of Post-developmentalism: Towards the East Asian Cities of Commoning, Peace and Sustainability**
- **Researchers: 23 Researchers
+ 8 Research Assistants**
- **Teams: (1) Inclusive Commoning Cities (2) De-growth Resilient Cities (3) Sustainable Cities for Transition (4) Post-Cold War Cities of Peace**

Gyeonguiseon Commons

공공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
이곳은 공공의 공간입니다.
공공의 공간은 누구의 것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공간은 도시의 생명선입니다.
공공의 공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가꾸어주는 일입니다.
공공의 공간을 함께
가꾸어주세요.

Gyeonguiseon Commons

- A Square located at Gongdeok, heart of Seoul
 - A cross of 4 train / metro lines
 - Neighbourhoods under pressure for high rise development
- The square was created after a train line went underground, creating an empty, linear space



Seoul station

Seoul

Gongdeok station

Gyeonguiseon park

한강 (Hangang)

상암길 (Sangamgil)

아차산로 (Achasan-ro)

강변북로 (Gangbyeonbuk-ro)

올림픽대로 (Olympic-daero)

어주로 (Eorju-ro)

개포로 (Gaepo-ro)

탄천로 (Tancheongil)

평창문화로

자유로 (Jayuro)

양천로 (Yangcheon-ro)

올림픽대로 (Olympic-daero)

한강 (Hangang)

미포로

홍창원로

북로 (Gangbyeonbuk-ro)

봉천로 (Bongcheon-ro)

응작대로

39

서해대로 (Seohaedaero)

오리로 (Ori-ro)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수해길 경인로



1905

2005

2012

2016

- Gyeongju railway was constructed in 1905.



1905

2005

2012

2016

- A part (6,3km) of railway went underground.
- A linear green space was created, connecting ecologically and socially fragmented neighbourhoods.



1905

2005

2012

2016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land owner) leased one square to a private developer, later an SPC (Special Purpose Corporation 이랜드 공덕)
- City government issued a temporary land use permit as land improvement before the SPC took on development.
- Community activities, including a co-operative market (Neuljang) used the space.



1905

2005

2012

2016

- Temporary land use "permit" was expired.
- Commoners declared the square 'Gyeonguiseon Commons'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 Declaring the '26th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Major Actors : (1) Evictees

Evictees, for example

- Urban refugees
 - Evicted from a re-development neighbourhood
 - Residential registration removed
 - Problematizing a territorially defined citizenship

2017.12.20 수 19:00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양재발거
#주민등록말소
#청년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싸움꾼

도시난민
희생씨
표류기

이벤트
뜨거운 총각 공연
"싸움꾼"
"경의선 특별법 송"
새로운 닉네임 투표

13

Major Actors : (1) Evictees

Evictees, for example

- Ahyun Pocha

- Evicted by state violence, led by apartment residents' public complaint(children safety, beautification, ...)

- Pocha (street vendors) seen as a threats to real estate value growth



Major Actors : (2) Activists

- Cultural Action (문화연대)
- Labour party activists
- Media activ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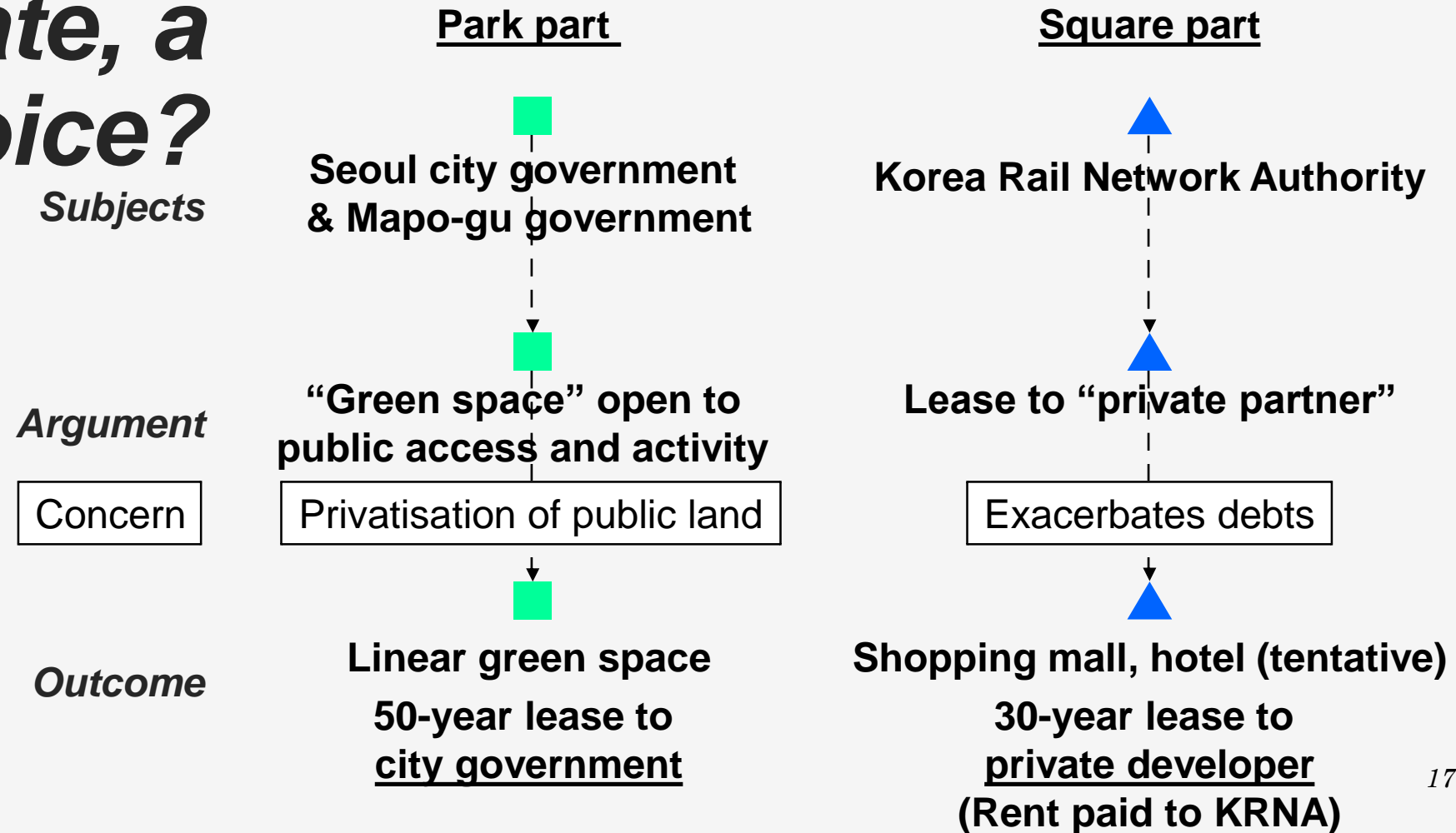
Major Actors ***: (3) Research*** ***activists***

- Increase in research activists participation



The state and the private, a choice?

- Are they two only options?





Urban Commons

- Gyeonguiseon Commons movement struggles against the commodification / privatisation of public real estate, but does not support the public either
- From territorially defined ownership to the right to the commons



Alternative Planning : (1) Purpose & Programme

Purpose

- A commoners' platform to share local experience and knowledge
- Commons-based urban revitalisation

Programme

- An open library for citizens
- Shared space for independent researchers (연구자의 집)
- A laboratory to solve local and individual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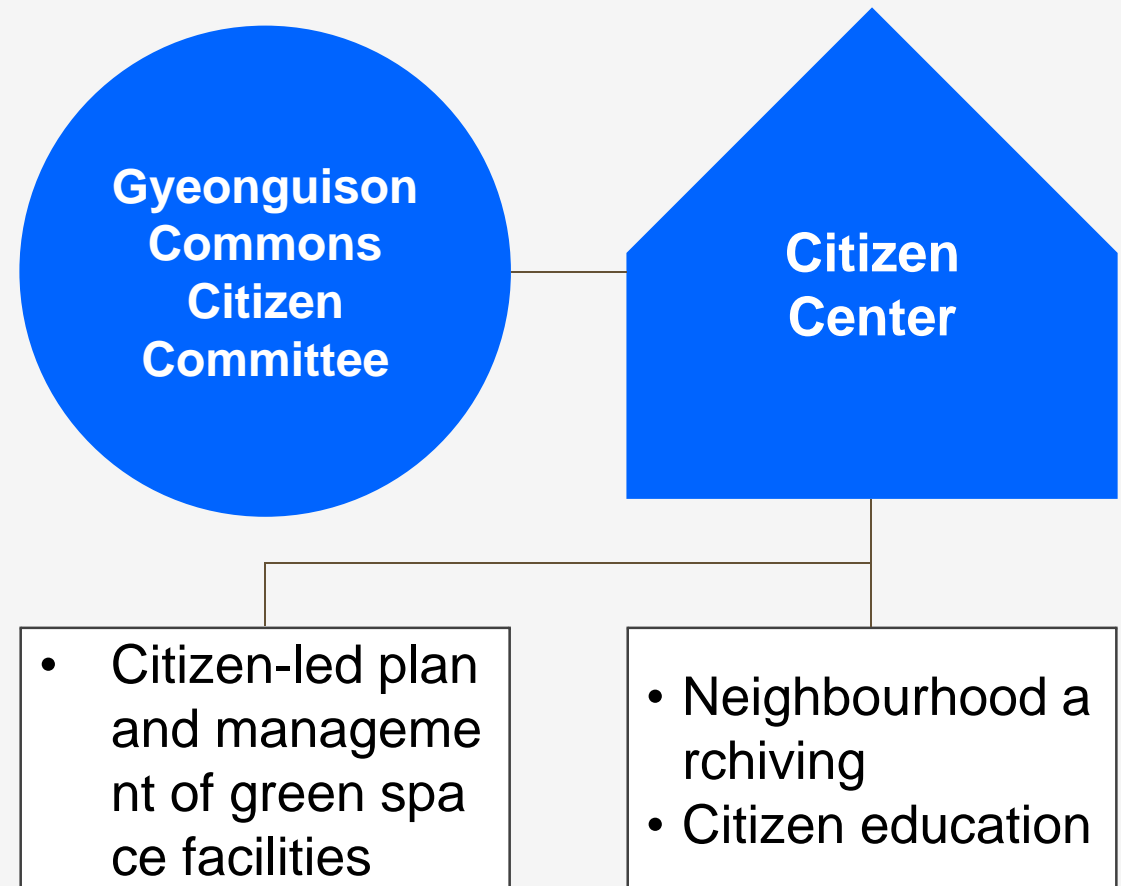
Alternative Planning : (2) Knowledge commons

- A connecting space for researchers in/outside of university (Anchor I)
 - Cooperation with nearby universities
 - Contribution to improve local community issues



Alternative Planning : (3) citizen commons center

- Space for temporary use (Anchor II)
- An anchor for citizens' self-management on the green space and neighbourhood (Anchor III)



Summary

‘경의선 공유지’라 불리는 땅이 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길이 6.3km의 선형 공원이 마포의 공덕역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작은 광장이 ‘경의선 공유지’이다. 민간 자본이 이 공간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광장을 점유한 채, 시민 계획의 실험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센터는 2016년부터 이곳 활동가들과 교류해왔으며 최근에는 함께 경의선 공유지의 대안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발표를 통해 경의선 공유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커먼즈 운동의 경과와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의선 공유지가 위치한 마포구 염리동 16-47 일대는 철도 노선 4개가 교차하는 곳이다.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경의선 공유지는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위태롭게 생존하고 있다. 2005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경의선 구간을 부분적으로 지하화하였고, 그 이후 생긴 지상 공간의 일부는 서울시가 임대받아 녹지로 조성했다. 녹지는 철길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사회적, 생태적으로 분절되어 있었던 지역들을 다시 연결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선형 녹지의 약 3분의 1 지점에 있는 것이 2,700여 제곱미터 넓이의 경의선 공유지 광장이다. 늘장 협동조합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이곳에서 벼룩시장, 문화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하지만 서울 도시 한복판에 ‘생겨난 빈 땅’에 가해지는 개발 압력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압박 속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한 경의선 공유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1년 철도시설관리공단은 호텔, 쇼핑몰을 개발하려는 한 민간 기업에 이곳을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발 이행을 앞두고 늘장 협동조합의 일시적 토지 사용 허가는 2015년에 만료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며 ‘커먼즈commons’를 주장하는 더 많은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광장을 점유하고 이곳을 ‘경의선 공유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조직되었으며, 같은 해 말에는 이 곳을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라고 주장하는 자치구 선언이 있었다(서울에는 공식적으로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이곳을 점유하거나 점유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광장 일대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진 시민들인 것은 아니다. 이들을 묶어주는 것은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공유지가 침식되는 상황에 대한 공동의 우려이다. 이를테면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되거나 당한 포장마차, 한때 한국 인디 음악의 발상지였던 곳에서 임대료 상승 등의 원인으로 작업이 어려워진 뮤지션들, 도시재개발구역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퇴거당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거 난민, 임대차 갈등에 의해 쫓겨난 임차인, 청계천 복원 당시 강제이주를 당한 상인들이 이곳에 있다. 공유지의 소멸이 어떻게 집합적 관계의 소멸로 이어지는지 몸소 경험한 이들이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센터는 커먼즈가 소멸되는 것은 자본의 이윤추구적 공간 이용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그 결과는 도시민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의선 공유지에서 커먼즈를 복원하려는 운동은 고도로 압축적이고 발전주의적이었던 도시화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지난 도시화 과정을 되돌아보고 대안적 도시만들기를 고민하게 해주는 실천적 노력이다. 이는 커먼즈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운동이라는 점에서, 도시(재)개발의 행정적 구획 안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에 의한 주거 운동, 영토적으로 정의된 법적 권리를 가진 주체들(이를테면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임차인 운동과 구분된다.

경의선 공유지 대안계획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센터, 문화연대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고 있다. 특히, 공간의 사유화에 기반한 투기적 개발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 모두가 공유해 사용하기를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재생모델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유지식 기반형 도시재생’ 방안을 구현하려 한다. 경의선 철길 주변에는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들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서울의 여타 대학들의 접근성도 매우 좋은 편이다. 서울의 이러한 지식과 문화, 예술의 생산거점들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생산물들이 이곳에서 모이고 공유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힘과 결합되어 사회혁신과 도시재생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대안 계획을 실현하려면 법제도적 정당성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의선 공유지로부터 우리 몸과 감각의 원리로서 ‘커먼즈’라는 신호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 계획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투자 대비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법과 효용의 언어 범위 밖에 있는 움직임들에도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경의선 공유지 운동은 그 경계에서 ‘누구의 공유지인가’, ‘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어떻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탈영토적인 것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이에 답하며 반영토적 실천을 끊임없이 벌일 때에 도시 커먼즈의 경계는 영토적 경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Bibliography

- Hall, T., & Hubbard, P. (1996). The entrepreneurial city: new urban politics, new urban geograph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153-174.
- Iveson, K. (2013). Cities within the city: Do-it-yourself urbanism and the right to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941-956.
- Kiss, E. (2010). The dialectics of modernity. A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globalization. *Journal of Globalization Studies*, 1(2).
- Logan, J. R., Molotch, H. L., Fainstein, S., & Campbell, S. (2013).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Japonica BROWN-SARACINO, The Gentrification Debates: A Reader, London, Routledge*, 87-102.
- Michael, H., & Antonio, N. (2009). Commonwealth. *Cambridge, Mass.*
- Mould, O. (2014). Tactical urbanism: The new vernacular of the creative city. *Geography Compass*, 8(8), 529-539.